

'THE RED'... 곡성군, 세계장미축제 준비 착착

5월17~26일 기차마을 일원 곡성읍·오곡면 일대로 확장

곡성군이 장미로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1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오는 5월17~26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일대에서 개최될 '제14회 곡성 세계 장미 축제'의 준비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주제는 'WE THE ROSE'로, 이는 'WE are THE ROSE'의 줄임말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곡성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장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주요 콘셉트로 설정했다.

'RED'는 로맨틱(Romantic), 흥미진진함(Excitement), 즐거움(Delight)을 의미하며 이는 강렬한 빨간색과 그 색상이 주는 낭만적이고 신나는 느낌을 축제 전반에 걸쳐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공연과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개막식 대신 뮤지컬 컨셉으로 준비된 기획 공연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축제장 곳곳이 모두 콘텐츠'라고 할 만큼 공연과 체험이 있는 곡성세계장미 축제에는 올해도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31개팀, 곡성군립청소년오케스트라, 곡성 출신 가수들이 함께 한다.

군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장소를 섬진강 기차마을에 만 국한하지 않고 곡성읍과 오곡면 일

로 확장해 섬진강 동화정원, 곡성 군민회관, 뚝방 마켓, 곡성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 전시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구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기차마을의 장미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문체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이면서 전남도 대표 축제다. 올해를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오감만족의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남 유기농 가루녹차 아일랜드 시범 수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차 가공식품 생산 수출 전문업체인 월드티(㈜농업회사법인)를 통해 유기농 가루녹차 200kg을 아일랜드에 시범 수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 품질평가와 장비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로, 100% 유기농 전남산 차 제품 품질을 유럽에서 인정받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수출한데 이어 아일랜드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2022년 기준, 유럽 차 시장은 69억 달러로 2027년 91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며 유럽 27개국 전체의 차 수입 규모는 64억원으로 세계에서 차를 수입하고 있다.

그중 아일랜드는 2022년 통계 기준으로 1인당 차 소비량이 2.12kg으로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량이 많은 나라로 영국의 차 문화 영향을 받아 홍차의 소비가 많았으나 최근 녹차와 허브차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전남 차가 유럽 전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국 맞춤형 제품개발 연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건재 기자

'벚꽃이 있는 날' 성료 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화순군이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강신기)이 주관한 '월간화사-벚꽃이 있는 날' 행사를 열었다.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벚꽃 호수 플라마켓 운영, 어린이 체험이 주를 이루는 동구리 명랑 놀이터, 무료 사진인화 등을 진행했다.

버스킹 공연은 상춘객들을 사로잡는 퍼포먼스 쇼와 전통악기 해금,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진 청년 그룹의 공연부터 벚꽃과 일상의 이야기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참여했다.

플라마켓은 디자인 공예, 패브릭 소품, 핸드메이드 제작 캐처 등 수공예품 셀러들이 참여했고, 화순의 로컬성을 살린 특산품과 관광상품이 소개됐다.

체험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봄나비핀 만들기 체험, 벚꽃 키링 만들기 체험, 타로 체험 등은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즐기며 온종일 체험 발길이 이어졌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더 알찬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응급 앰블런스 이송 경비 지원 영광군, 주민·외국인 대상

영광군은 지난해 3월부터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앰블런스 이송 경비 전액을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건강보호 의지로 추진됐다.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150명의 군민을 지원해 약 2500만원의 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이송경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 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달 30~31일 동구리 호수공원에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벚꽃행사가 열렸다.

화순군 제공

함평군, 2조8774억대 규모 지역 발전 전략 모색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함평군이 2조8774억원 규모 지역 발전 전략 모색에 나섰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등 군정 정책사업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일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공간개발 전략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함평군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함께 1조 7100억원 규모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비전사업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함평군 공간 구조를 3개 축(해양생태, 산악녹지, 미래성장)으로 나눴다.

공간 구조별 특성에 부합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확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2조8744억원 규모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의 구체적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류인섭 전 전남농업기술원장의 위원장

선출과 함께 새로 부위원장이 된 임영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전통식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을 추가 제안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기업인, 지역 사회단체장 등 23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그룹(농림축산, 관광스포츠, 도시개발 분과)과 일반그룹으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전국 첫 향촌변호사' 무료 상담 서비스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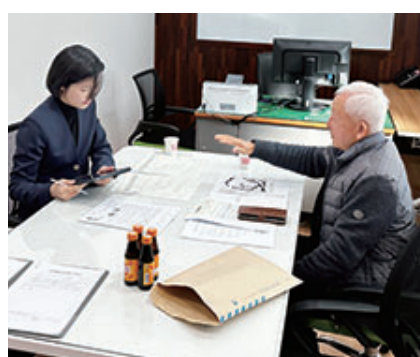
군민 법률 자문·문제 해소 한몫

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해 군민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매주 월요일, 그동안 모두 11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담양에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 휴닥터 등이 있지만, 정식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나 지



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소도 없이 대면상담을 위해선 광주지역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군은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향촌변호사 상담을 통해 주민들은 쉽게 전문적 법률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됐고, 법률 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1대 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 일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형식적 상담이 아닌 충분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3건만 상담을 진행한다.

김혜인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방향 제시 등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소방서, 특별경계 근무 청명·한식·선거철 맞아

장성소방서는 다가오는 청명·한식과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3일 오후 6시부터 6일, 9일부터 10일까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주의' 단계 발령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혹시 모를 화재에 저지하고자 소방력을 통해 예방 순찰 및 개표소 근접배치에 나선다. 이에 장성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32명, 의용소방대원 486명 장비 23대가 동원되어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구축 대형화재 방지에 총력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소·염소 사육 농가 대상

화순군은 3일 관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일제 접종은 소 사육 농가 605호 2만7664두, 염소 사육 농가 83호 1만1963두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등은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보조 100%로 전액 무상 지원되며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가 직접 접종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자가 접종하면 된다.

화순군은 일제 접종 2주 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재접종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 지원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도 적용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종 기자